社 說

대학내 부문운동의 연대를 모색할 때

— 1학기 종간호를 발간하며

지난 한학기 동안 우리들은 인박의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속에서 스스로의 모습조차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가치관과 세계관의 혼란을 거듭하지 않았나 싶다.

안으로는 학원민주화투쟁과 한총련의 출범, 밖으로는 신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많은 변화들, 그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고민하였고 무엇을 실천하였으며 삶속에서 어떻게 결집하였던가에 대한 정리의 시간들이 방학을 앞둔 우리에 주어진 과제인 것 같다.

먼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 대학의 다양성에 대해 잠시 언급해보자. 대학은 다양한 외견의 수렴처이며 해결의 장으로서 대학인을 포함한 모든 진보세력들의 비판의지를 받아들일 만큼 포용력을 갖춘 준사회이다. 더우기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기에 제각각의 목소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이러한 다양한 외견을 결집시키고 표면화시켜 운동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이 바로 대학언론이다.

대학의 언론 즉, 대학신문은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인 학생, 교수, 교직원 등 모든 대학인들을 위해 존재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진보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귀와 눈이 되고 손발이 되어 항상 생활속에서 함께하는 동반자인 동시에 대변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새삼스레 이러한 관계를 재조명하는 이유는 독자대중 즉 학우들이 참여하지 않는 대학신문은 존재 할 수 없으며 동반자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의 일장만을 첨예하게 주장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되어버린다면 건전한 비판의 자리마저도 차단되어지는 막힌 언로의 현실을 접하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지적 입장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독자대중들의 인식부족과 무관심도 큰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간은 서로에 대한 믿음의 부재에서 온다. 학생회 사업, 언론운동의 기본대상은 분명히 일반 학우들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전체변혁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대중사업이 지나친 부문운동의 우선경쟁 때문에 사업이 객관적인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선후를 혼동하는 우를 범할 경우도 있다. 운동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지금이다.

이제 우리는 원칙론적인 사고의 틀을 과감히 깨야할 시기가 오고 있음을 다함께 인식하고 대학내 부문운동의 진정한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하나되는 '우리'로서 변혁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한총련 출범식 후 전개된 시위를 지켜보며

우리나라 학생운동사는 식민지와 독재체제로 상징되는 왜곡된 근현대사를 겪으면서 독립과 민주 그리고 통일을 추구해 온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70년대 이후 강압적인 유신독재체제에 저항하면서 그리고 80년대의 통일운동을 선도하면서 소시민적 삶에 안주한 기성세대들로 하여금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로 이끌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귀한 젊은 이들이 수없이 희생되었다. 그간의 학생운동은 딱히 추상적인 언설로 규정하지 않더라고 우리 사회의 소금으로서 부패를 적시웠으며, 거울로서 삶을 되돌아 보게 했으며 그리고 시민들 보다 한걸음 앞서 조국의 내일을 도모해 왔다.

이러한 유구한 전통 위에 서 있는 학생운동이 근간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난 5월 28일 고려대학 교정에서 7만여명의 전국 대학생들이 운집한 가운데 기존의 조직이던 전대협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으로 계승하였다. 그리고 당면 사업으로서 첫째 전대협의 계승과 한총련의 강화, 둘째 교육 대개혁 실시와 민주 대개혁의 쟁취, 셋째 5월 항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넷째 반미 반핵 평화 통일의 실현을 내걸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출범식 마지막 날 평화적 시위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터져나온 과격시위에 관한 우려이다. 그것은 단순히 '과격' 시위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로인해 한총련의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근래 대학 구성원들이 점차 원자화되어 개개인의 일에 함몰되고 있는 모습을 두고 볼 때, 그리고 학교 밖은 나름대로 개혁의 바람에 흘려있는 모습을 두고 볼 때 한총련을 출범시킨 그 자체의 과정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런데도 귀중한 지도부를 소모시키면서까지 시위를 해야 했을까. 만에 하나 그 시위가 대학생 조직이 아직 건재하다는 사실을 과시하는 의미였다면, 그 '과격성'은 한총련의 조직 구성원들의 위기의식의 발로로 밖에 여겨질 수 없다. 그 시위의 주체였던 '광주 책임자 처벌'의 실현을 위해서도 한총련 조직은 더욱 견고히 유지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한총련내 일부 집단의 지나친 활동이 아니었나 여겨지기도 하는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역시 한총련의 조직적 응집력의 미약성을 말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총련은 전대협이 직면하여 심각히 고민했던 객관적 상황을 다시금 반추해 봐야 한다. 그리고 한총련이 대 사회투쟁을 더불어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면, 일반 시민들의 동의, 아니 묵인이라도 이끌어 낼 수 있어야만 한다. 지금은 적어도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총련은 생활, 학문, 투쟁이라는 직접한 그 삼대 과제를 발밑에서부터 점검해 나가야 한다. 한총련의 빠른 회복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평화적 핵이용 명분의 '북한 몰아치기'

사설

— 북한 핵문제의 배경과 남북관계에 관한 고찰

북한이 금년 3월 12일에 NPT를 탈퇴한 이후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는 다시금 대립과 반목의 찬기운이 맴돌고 있다. 지난 91년 봄에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가장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때가 지금이다. NPT 탈퇴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한 유엔 등의 국제기구는 일단 북한의 탈퇴번복을 촉구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로의 완전한 복귀를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 설사 북한이 탈퇴를 번복하고 NPT에 잔류한다손치더라도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팀스피리트훈련 영구중지 등의 사항들을 수용해야만 한다.

이번에 북한이 탈퇴한 NPT가 결으로는 '핵자원의 평화적이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핵보유국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핵이 비핵보유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68년에 채택되어 70년부터 발효된 이 조약은 현재까지 1백54개국이 가입되어 있지만 1백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인도(60개), 파키스탄(10개)등이 아예 가입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핵보유 외혹이 짙은 브라질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지난 85년에 가입을 하였지만 '미국의 직접적인 핵안전보장'을 주장하며 핵안전협정체결을 미루다가 91년 미국의 한반도 배치 전술핵철수 움직임과 관련하여 협정체결을 결정하고 92년 1월에 서명하였다. 북한이 NPT를 탈퇴한 것은 플로토늄 보유량이나 핵무기개발 의도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떠나 줄더 다각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몇달동안의 국제적 핵공방전으로 이제 북한이 NPT를 탈퇴한 배경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IAEA를 통한 북한에 대한 핵압력이 실제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공세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계속 미국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은 북한사회의 존속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NPT복귀과정에서 있을 협상을 통해 대미관계와 남북관계 양측면에서의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북한이 NPT를 탈퇴하는 강경한 정책을 구사한 것은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92년 4월에 협정을 비준한 후 북한은 IAEA의 핵사찰에 성의있게 임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변화에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관계개선 노력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으며 그나마 유지되던 베이징에서의 접촉은 92년이 마지막이었다. 남북간의 상호사찰을 위한 핵통제위의 회담은 '미국의 사찰참여'와 '일반군사기지에 대한 사찰문제'를 둘러싸고 92년 5월27일 제5차 핵통제위 이후에는 '개점휴업'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제한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다.

미국은 91년 봄에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공개한 이후 자신이 직접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꺼려 왔다. 하지만 미국의 의도는 한국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의 배후에서 핵심적으로 관철되어 왔다. 한국정부의 대북관계가 '합의서'를 계기로 전환점을 마련하자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남아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경국 현재의 북한핵사찰공방은 문제의 '사실적 차원'을 떠나서 좀더 큰 맥락에서 사고한다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고립정책에 다름아니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다. 설사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미사일협정, 화학무기 문제를 쟁점화할 것이며 마지막에는 인권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결코 과장만은 아니다.

북한의 핵사찰문제를 북한의 정치력과 외교력, 혹은 미국의 입장에만 맡기려는 자세는 민족적 견지에서도 옳지 못하다. 북한의 플로토늄 몇그람에 흥분하는 한국정부는 몇십만배가 더 많은 1.2톤의 플로토늄을 프랑스에서 들여온 일본의 핵정책에 대해서는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전세계에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로토늄이 1천톤, 고농축우라늄이 1천3백톤이 있다. 핵정책에 관한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철대적인 우선권을 현실로 인정한다손치더라도, 북한의 핵사찰문제는 '국제적 해결'아니라 '민족적 해결'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지대화'가 최선의 해결책이겠지만 당장 그것이 어렵더라도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민족내부의 문제'로 만드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세적 고립정책은 북한을 사면초가의 처지로 내몰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북한 핵개발에 대한 어떠한 확증도 없이 미국의 북한 몰아치기에 동조하는 것은 "민족통리·공존공영·국민적 합의"를 표방하는 새 정부의 통일정책과 모순될 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사태를 비화시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지금은 민족의 이익과 미국의 논리가 대립하고 있는 시점이다.

북한 NPT탈퇴, 미 고립정책 벗어나려는 적극적 시도

강대국들의 핵논리속 민족적 해결노력 있어야

이 선 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

매체비평

대학주보

대학 구성원 이어주는 질긴 끈이 되길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어줄 '끈'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끈은 사람들이 모두 손을 뻗으면 똑같이 잡기에 쉬울 만한 것이어야 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식을 전하기에 좋게 가늘면서도 질긴 것이어야 했다.

매주 월요일에 받아보는 8면의 대학주보는 우리의 '끈'이다. 이번주 매체비평은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우리의 '끈'인 대학주보를 대상으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대학주보를 아껴 읽는, 또 거기에 적게라도 글을 올리는 필자로서는 어려운 주문이었다. 아무래도 이번 매체비평은 비평이라기보다는 '매체에 바란다'에 가까울 것 같다.

지난 5월 17일 창간 38주년을 맞은 대학주보는 사설을 통해 89년 '매체혁신'후 드러났던 한계들을 극복하면서 '언론의 생산과 소유의 주인은 바로 대중이고 언론은 대중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대중신문'으로서의 대학신문의 나아갈 바를 밝힌 바 있다.

88년 이후 각 대학언론에서 진행해온 매체혁신운동과 반성을 통해 대학언론은 나름대로 구체적인 고민을 이루어 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위에서 밝힌 '대중신문'으로의 거듭남에서 찾았다. 하지만 과연 그 거듭남이 또 하나의 생명을 낳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가 인다. 이른바 '점하는 신문'에서 '읽히는 신문'을 지향했던 매체혁신운동의 구호는 아직 메아리를 들을 수 없다. 요컨대 '읽히는 신문'이라고 보기에는 모자란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참다운 '대중신문'이 걸어야 할 길은 대중과 한계 호흡하는 매체가 돼야 한다는 데 있다. 운동지향의 좌편향과 아카데미즘적 저널리즘이라는 우편향은 아직도 합명제로 수렴되지 못했다. 우선 이는 지면할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편으로 기운 것에 대한 반동이 너무 큰 듯 지면은 1면 보도기사와 사설을 뺀 나머지 공간이 '논문'으로 채워지고 있다. 천박한 대중화보다는 전문화가 반가울 일이다. 하지만 신문은, 아니 매체는 수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끊기는 넘지 못할 넘어서는 안될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중신문'은 대중의 이야기를 대중의 눈으로 써야한다. 물론 안타깝게도 대중의 이야기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속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작게라도 '늪'옆에서 일어나고 있다. 기사가치의 기준이 되는 몇몇 잣대 중에 가장 굵직한 두 가지, 시공간적 근접성의 원칙이 눈에 띈다. 지난해 실었던 '캠퍼스 문화인'이 좋은 예가 될까. 또 아직도 대학주보를 접으면 먼저 눈이 가는 '취재노트'는 웃음 속의 풍자 때문만은 아닌, 우리의 얘기이기에 매력이 있을 것이다. 일이 터졌을 때 찾아가는 인터뷰가 아닌 늘상 들러보는 발걸음을 바란다. 전체를 아우르기보다는 적은 단위로 나눠 차례로 훑는 형식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한다.

55년 5월 12일에 창간호를 낸 이래 38년 동안 올곧게 생명력을 이어온 대학주보가 '모든 바람은 대학주보사로부터'라는 표어에 걸맞게 학우들을 이어주는 가늘면서도 질긴 '끈'이 돼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 광 민

〈신문방송학과 신문연구부 회원〉

인재와 기술로 세계에 도전하는 국민기업-삼성

NO HOW!

"반도체에 관한 기술은 이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보자구! 우리에겐 우수한 인재가 있잖아."

"드디어 해냈어! 이젠 어떤 분야든 우리손으로 할 수 있어!"

NO HOW에서 시작한 반도체 산업—
지금은 삼성의 자랑스런 KNOW-HOW가 되었습니다.

선진 경쟁사들의 견제와 우려속에서 시작한 반도체사업—
하지만 10년이 지난 오늘, 삼성은 DRAM분야 세계 1위,
매모리분야 세계2위의 초일류 반도체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세계최초의 64M DRAM 개발, 차세대 반도체기술의 일본수출에 이어
삼성은 1기가디램 개발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창조가 넘치는 기업분위속에서 NO HOW의 벽을 넘어
KNOW-HOW를 창조하는 삼성인—
지금 이 시간에도 21세기 초일류기업을 향한 삼성의 도전은
모든 첨단기술분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끝없는 도전과 자기혁신을 통해 사신의 참을 실현하는
젊은이와 만나고 싶습니다.

KNOW-HOW!

83년 11월 64KD램 | 84년 10월 256KD램 | 86년 7월 1MD램 | 88년 2월 4MD램 | 90년 8월 16MD램 | 92년 10월 64MD램

SAMSUNG 삼성